

활동지 - [대중사업] 2

학우들 속으로 들어가고

목해는 반드시 학우들에게 인정받자!!

대중사업의 목표

총여학생회 대중사업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총여를 알리고 자주적 총여학생회의 당위성을 학우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여성문제들에 대한 학우들의 의식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들과 학우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 총여학생회를 알리자!!
-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자!!
- 단대 학생회와 같이 의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총여학생회의 색깔을 확실히 하자.
- 총여학생회의 사람을 꼭 남기자!!
- 학우들과 함께 하는 친구 같은 학생회를 반드시 건설하자!!
- 학우들의 사회, 정치적 분야에 대한 의식성 또한 높여 내야 한다.

총여학생회 대중사업의 방향, 방도

총여학생회 대중사업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요즘 맨날 하는 말이지만 학우들의 요구점과 학우들의 의식과 학우들의 인식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대중사업을 바르게 진행할 수 있다.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한다.
- 소모임을 통한 사업을 잘 진행한다.
-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 강연회와 선전 사업이 무엇보다 주가 될 것이다.
- (전 집행부들이) 학우들을 직접 만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 대중 투쟁 사업에 있어 총여학생회의 자활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살인미군 처벌 투쟁을 하더라도 총여학생회는 단위학생회와 성격이 다르므로 따로 계획서를 제출하여 함께 하는 속에서도 여학우들을 위한 다양한 고민과 활동을 하여야 한다.

- 대중 사업을 잘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대가 필요하다.
- 대중 의식화를 위한 1년 계획을 꼭 세우고 주체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판!!
→ 총여대원과: 외내가장
학우들에게 꼭 인사하라.

복지공약

▶ 학내 가로등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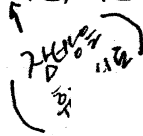
- 현재 복지 소위에 제안을 했고 내 기억으로는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조사하지 않았다.
- 정책으로 내 놓기는 했지만 실제로 상황을 조사해 본 적은 없다.
- 우리도 가로등 설치 상황이나 운용 상황을 모른다.
- 우선 학내 실태조사가 먼저이다.
- 실태 조사 후 학교와 협의해 가는 것이 먼저이고 새롭게 세우는 것보다 기존의 가로등 운용의 면이 더 심각하다면 그것부터 제기하고 바꾸어 나가야 한다.
- 특히, 여학우들이 많이 다니지만 어둡고 가로등이 없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확실한

→ 복지사업 (누명.인사)
→ 복지사업 (누명.인사)

사전 조사 후에 학교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학생 휴게실 개선

- 현재의 여휴는 전에 비해서 관리나 공간 부분에 있어 많이 어려워진 상태이다.
- 우선은 개방시간이 오전 8시~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24시간 운용이 어렵다.
- 시험 기간만이라도 24시간 운용하도록 학교와 협의가 필요하다.
- 여학생 휴게실 열쇠를 받아야 한다.
- 우선은 휴게실 선전사업을 광대하게 진행해야 한다.
-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복지안을 따로 마련하여 반드시 우리가 얻어내자.
- 선전사업과 관리는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인생, 건강, 행복)
- 새로 만들어질 사회대 여학생 휴게실, 기존의 다른 과의 휴게실도 책임져주려는 의식이 필요하고 깊은 연계가 필요하다.



▶ 여학생 화장실 개·보수 / 청결유지

- 화장실 개·보수는 현재 학교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남단>
-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학우들이 자주 사용하는 화장실만이라도 우선 꾸미는 것이 필요하다.
- 각 단대의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체크하고 수시로 개선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

◀ 개·보수 캠페인 → 학교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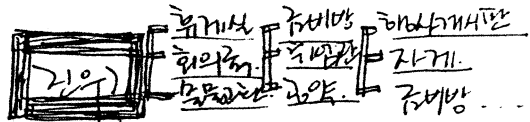
▶ 소모임 활성화

- 여문연·금비방 등과 함께 고민을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우선은 설문조사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 → 인질대만 있던 건해.
-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체와 함께 관리하되 주체가 구성원들과 함께 자체적인 활동을 하도록 한다.
- 주체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친구로 우리가 인선한다.
- 소모임도 따로 (다음카페) 같은 것을 만들어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
- 소모임 주체들은 반드시 1년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말 여학생들이야

▶ 홈페이지를 통한 물물교환

- 무엇보다도 빨리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
- 다음으로, 홈페이지에 물물 교환란을 만들고 우리가 대대적인 선전사업과 함께 시범적으로 물물 교환을 시행한다.
- 1년 동안 잘만 운영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다.
- 홈페이지 주체가 함께 주체를 맡도록 한다.
- 끊임없는 선전사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여학생들이야!!!

▶ 구급약, 생리대 구비

- 구급약은 학교 양호실에 알아보고 받을 수 있다면 받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학생회비로 사는 것이 좋다.
- 생리대는 스폰서를 구해보거나 아니면 직접 어느 정도만 구비한다.
- 돈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1년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하여야 한다.
- 선전사업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우산대여

-우산은 한가지 색으로 이름을 찍어서 구입한다. (인·사·와·논의)

-방법은 인문대와 비슷하게 하면 된다.

#인문대: 학생증을 가져오면 확인하고 장부에 기입하고 늦거나 잃어버리면 벌금을 받는다.

-선전사업이 잘되면 학우들이 총여로 한번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아마도 학우들이 알고만 있다면 많이 올 것이다.

▶ 소리통 사업

-일단은 복지 요구안을 낼 때 같이 요구하고, 안되면 우리 돈으로 빨리 구입한다.

-그 후 우리가 하기로 했던 방법으로 시범 시행한다.

#인, 생, 사, 경, 자, 미 : 통 설치

#공, 디, 산, 음 : 기존의 방식으로 설치한다. (공책 반으로 잘라서 걸어두는 것)

-3월 한달 간 시범시행을 하고 이후 다시 논의해서

4월 중순까지는 반드시 전 단대에 안착화시킨다. <공책, 통>

반드시 수거와 답변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선전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 좋다. <새벽조사.>
-끈질기게 계속하자!!

▶ 소식지 발간 → 비가영님이 주체

-한 달에 한번 낸다.

-우리의 내용을 실는다.

-일반 학우들의 인터뷰도 좋을 듯하다.

-다양한 내용을 실었으면 한다.

-주체는 반드시 함께 할 친구들을 모은다.

-작년처럼 학교에서 찍어주도록 학생과와 이야기한다.

-최대한 재미있게 만든다.

-선전사업을 많이 한다. → 많이 뿌리기도 해야 한다.

<새내기실용.>

개: <과 함께.>

▶ 여성 문화제

-올해는 크게 하자!!

-지역 단체와 연계해서 다양하게 하자.

-우리 뿐 아니라 다양한 과에서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예) 국문과에서 여성문화제 기념 특별 시화전 진행.
사학과에서 역사 속의 여성들 살펴보기(바로 알기) 등.

-스폰서도 최대한 많이 받자.

관심 부탁하기
공유하면 재능 기부 하기!!

<과반생참여>

▶ 금요비디오방

-주체: 강선행 부회장님. = <주체: 사감을 받는다.>

-1년 계획을 세우자!

-회원제로 운행하고 비디오 보는 것 외에도 친분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자!!

-대대적인 선전 사업을 많이 하자.

-반드시 금요 비디오방을 함께 하는 친구들을 남겨야 한다.

유계별 선전사업 <과 함께.>

- ▶ 생리대 자판기 문제 → 직접 이동 가능.
- 실태 파악이 우선.
- 이후 다시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학교와의 협의 후 이행 가능한 일이다.

▶ 이동 학생회

- 시험 기간을 제외한 전주에 걸쳐 진행하도록 한다.
- 강방과 동시에 진행한다.
- 이야기도 하고 차도 나눠 마시고 파전도 구워먹고 다양하게 진행하자
- 설문조사, 소식지 나눠주기 들을 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얼굴 자주 보이고 친해지는 것이 장땡이다!!

수요 반일 집회

- 현재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몇 년째 위안부 할머니들과 정대협이 주최로 반일 집회를 하고 있다. 비록 서울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아직도 풀릴 길 없는 위안부 문제를 함께 고민하자는데 있어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 생각된다.

▶ 다양한 캠페인 진행

- 예를 들어 '생리대 값' 내리기라던가 여학우들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캠페인들을 학내에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듯 하다.

▶ 금연구역과 관련하여...

- 학내 상황을 계속하여 점검하고 단대 학생회와 금연 구역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정이 안되면 우리가 만들어서 건물내에는 금연구역임을 정하자
- 금연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고
- 학우들이 담배를 특히 많이 피는 곳에 무서운 선전물을 붙이는 것도 좋다.
- 예) 담배 피면 몇 년 빨리 죽는다. 이런거...

이 캠페인 의 조이TV → 발기안과 대안개발도 필요.

▶ 여휴의 확대: 여학생 복지 위원회: 단대 과 여부 건설

- 여휴의 확대는 지금 단위 자체로 공간을 만들어 내지 않는 한은 어렵다.
- 우선은 건물마다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이후 가능한 곳은 바로 단위 학생회와 연계하여 휴게실로 만들어 간다.
- 여학생 복지 위원회는 현재 세워진 각 단대/ 과의 여학부장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매주 운영위 시간에 총화하고 심각하게 제기 되는 것이 있으면 꼭지 소위원회에 제기한다.
- 단대/ 과 여부 건설은 1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 가면서 꾸준히 진행한다. → 1년 계획.

▶ 한 달에 한번 역사 속 여성 알아보기

- 한 달에 한번 역사 속의 여성들을 찾아내어 그 여성에 대한 것들을 선전하여 전시한다.

→ 대중 역사나 기획전

계략??

▶ 성폭력 학칙 개정 운동

- 실제적으로 잘 고민이 되지 않는다.
- 우선은 지역단체와 이야기를 시작 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여성학 선생님, 지역 단체들과 함께 학칙 개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우선은 설문사업이 먼저라는데 학칙이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 우리조차 알지 못하면서 학우들을 만나가면서 개정 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실제 단위 사정이나 우리의 수준으로 볼 때, 우리 학칙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알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3월 달 동안 우선 학칙에 대한 개정 사업을 벌여 나가기 위한 기본 과정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속에서 연대가 정말 중요할 것이다.

-학칙 개정 사업은 무엇보다도 우리부터 학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이후에 학우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학우들과 함께 분위기를 모아나가면서 우리의 개정안이 학교에 받아들여 지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3월,4월 연구사업

-5월~7월 : 분위기 모으기

-2학기 개정 논의 (방중부터 들어가도록..)

▶취업을 함께 고민하는 2797총여학생회

-3, 4학년 대기업 연수(?)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 박람회를 열어 내겠습니다.

▶울산 여성의 전화 부설 고용평등 센터의 취업특강

▶우리 학교 출신 선배들과 만나기

▶총여홈피에 취업 관련한 공간 만들기

-홈피에는 취업과 관련해서 서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것이다.

-학내 학우들끼리 서로 아르바이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대적인 선전사업과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학년별로 나눠서 여성 강좌를 진행한다.(취업과 관련하여..)

▶ 여성학 모니터링 사업

- 개강하기 전에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면 찾아 뵙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개강 이후 첫 시간에 강의실에서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되면 모니터링 반을 모집하여 한달에 한번씩 정도만 모임을 진행한다.
- 주체가 필요하다.

▶ 통일 시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 이북지방방도

- 한마디로 말해서 학우들에게 통일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통일운동을 잘해야 한다.
- 무엇보다도 다양한 볼거리로 학우들에게 이북에 대한 적대감을 없애 가는 것이 필요하다. → 이북대사방도, 이북명하상영.
- 그 수단으로 금비방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영상물을 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성폭력 신고전화

→ 이북

- 1366을 많이 알린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폭력에 대한 끊임없는 대중 의식화가 필요하다.
- 이후 상담 단체와 법적인 단체까지 학우들에게도 알려 나간다.
-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총여학생회, 집행부와 총여 회장, 부회장의 폰번호를 학우들의 신고센터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

▶ 대중 투쟁 영역은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 대중 의식화 사업

- 인터넷을 통한 의식화를 잘 진행하여야 한다.
- 작년에 홈페이지 잘 만들었는데 운영이나 선전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다.
- 지금의 세대들은 인터넷에 민감한 세대들 만큼 반드시 이 사업을 잘 진행하여야 한다.
- 학우들속에 이슈를 던져 주어야 한다.
- 잘 운영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선전해야 한다.
- 학우들의 메일 주소를 파악하여 메일 터치를 한다.
- 과학생회, 동아리 등에 많이 알린다.
- 주체를 통한 1년 계획을 도출하여 함께 실현한다.

→ <어학위협단> 트위
→ [251101]

갑작스럽게 준비한 것이라서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어떻게 학우들과 함께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보요...